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5



Contents

※ 2026.08.26.(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8.19.~2026.08.25.)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경주시, 시민참여형 생태정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6.08.25)	1
– 대전 대덕구, 보자기 선물포장으로 탄소중립 실천(2026.08.24)	1
– 의성군, 산불 피해지 복구로 탄소흡수원 확충(2026.08.20)	2
– 인천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기조 역행 지적(2026.08.20)	3
– 진주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2026.08.25)	3
■ AI 분야	3
– 당정, 내년 800조 예산 AI·청년·지방 집중 투자(2026.08.25)	3
– 정부, EDCF 첫 AI 사업…탄자니아 교육기관 건립(2026.08.23)	4
– 대통령, AI 활용 비리 적발 시스템 구축 주문(2026.08.21)	5
– 전남광주시, 반도체·AI 중심 첫 조직개편(2026.08.22)	5
– 천안시,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 AI 교육 운영(2026.08.24)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춘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위원회 정기회의(2026.08.21) 8

- AI 분야 8
 - 코레일, 프랑스와 AI 예측정비 기술협력 교류(2026.08.25) 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9

- 탄소중립 분야 9
 - 넥센타이어, 국내 공장 첫 직접 PPA 도입(2026.08.24) 9
 - 하나금융, 임직원·고객 참여 탄소중립 캠페인(2026.08.19) 10
 - 부산대 연구진, 개정 탄소중립법 한계 진단(2026.08.25) 10

- AI 분야 12
 - 제주항공, 전 임직원 AI 교육으로 AX 확대(2026.08.19) 12
 - 카카오, AI 중심 인적분할...2030년 매출 16조(2026.08.22) 13
 - 오픈AI, 2027년 상장 목표...기업가치 1조달러(2026.08.20) 13
 - 엔비디아, 메모리 부족에 AI 서버 15% 인상(2026.08.23)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경주시, 시민참여형 생태정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6.08.25) - 경주시가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금장대습지공원 일원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사업 '내 손으로 가꾸는 도심정원'을 추진하며, 시민이 습지 식물을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하도록 금장대습지공원을 시민 참여형 생태정원으로 육성하는 환경실천 프로그램을 전개 - 프로그램은 계절별 습지 환경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돼 지난 4월 연꽃 식재를 시작으로 5월 창포 식재와 수생식물 교육, 7월 자생 수생식물 관찰 중심의 현장 생태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황화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하고 습지가 탄소 흡수와 생태계 유지에 미치는 역할을 배우는 교육을 운영해 참가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 시간을 마련 - 오는 10월 15일에는 금장대습지공원과 형산강 사이 공원 구간에서 유채꽃과 수레국화, 꽃양귀비 등을 심는 대규모 꽃씨 파종 행사를 열어 내년 봄 꿀벌과 나비 등 화분매개곤충의 먹이원을 제공하고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갖춘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습지공원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
	□ 대전 대덕구, 보자기 선물포장으로 탄소중립 실천(2026.08.24) -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가 주민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해 '탄소제로(Zero) 보자기 선물포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히며,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천이나 보자기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친환경적인 선물포장 방법을 배우고 자원 재사용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기획한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프로그램은 대덕구민 성인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9월 8일과 22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대덕구 한남로88번길 27, 1층)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 -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탄소중립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원 재사용과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지역 내 확산을 기대
	□ 의성군, 산불 피해지 복구로 탄소흡수원 확충(2026.08.20) - 경북 의성군이 산불 피해지 복구와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에 나서며, 산림 피해지 조립 복구와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외부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히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탄소 흡수원 증진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 - 이번 모집은 개인 산주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작성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신청 자격과 절차는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사업자는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구성 - 최유철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지 복구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향후 외부사업 등록 과정까지 차질 없이 지원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인천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기조 역행 지적(2026.08.20) - 인천시가 1847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 입주하는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 루원복합청사가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에도 인천에서 신축 중인 공공 건물 대부분이 최저 등급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을 확인 - 인천일보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인천시와 11개 군·구가 인증받은 120개 건물 가운데 76개(63.3%)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자립률 100%를 의미하는 1등급부터 5개로 나뉘는 인증 등급에서 4등급 32개까지 포함하면 인천 신축 공공 청사의 90%가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냉난방 등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고효율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건축물로 정부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부터 최소 5등급 이상 충족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에너지 성능이 높은 녹색 건축물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탄소중립 이행의 마중물 구실을 해야 하는 공공 분야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시사
	□ 진주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2026.08.25) - 진주시가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에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히며, 전국 지자체와 기관이 제출한 73건의 탄소중립 이행 성과와 협력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 우수사례 선정 성과를 확보 - 진주시는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와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수요응답형 하모콜버스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 연간 약 2411t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공영자전거와 전기차·수소버스 등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의 약 40%를 목조건축으로 조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해 목재의 탄소 저장 기능을 활용하는 탄소 저장형 건축 모델을 구축 -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가좌산 등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심 생활밀착형 숲과 정원 도시 조성 확대, 시민정원사 양성 등 녹색도시 공간 확충에 힘쓰는 한편 진주남강 유등축제 음식 판매 부스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도입해 자원순환형 축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의 지속 발굴과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 모델 발전을 도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당정, 내년 800조 예산 AI·청년·지방 집중 투자(2026.08.25) -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 800조 원 넘게 편성하기로 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AI와 청년, 지방 등 5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 원에서 1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늘어난 재정을 일시적으로 지출하기보다 미래 성장에 투입한다는 방침 아래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추진 - 투자 분야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과 지방 성장, 국민 안전 등 다섯 가지이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 장을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대학생 인턴 활동의 학점 인정, 18살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특별보조금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계획 - 늘어난 세수 일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국민의힘은 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운용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필수 의료 분야 특별회계 신설 등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확인
	□ 정부, EDCF 첫 AI 사업...탄자니아 교육기관 건립(2026.08.23) - 재정경제부가 23일 제159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EDCF의 첫 AI 사업으로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하며, AI와 로봇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육기관 건립에 1억7000만달러 규모의 EDCF 차관 지원을 추진 - 사업은 교육시설과 캠퍼스 건축, AI Lab·IoT·로봇틱스·드론·3D 프린터 등 AI 교육·실습 기자재 구축, ICT·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등으로 구성되고 교육기관 내 AI Lab과 고성능 AI 트레이닝 시설에 한국의 AI 기술과 교육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만 수주할 수 있는 구축성 차관 사업으로 AI·에듀테크·건설 관련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기대 - 정부는 EDCF 차관 외에도 정책자문(KSP)과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과 연계해 교육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1억달러 이상 대형 EDCF 사업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 정부에 사업을 제안할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으로 'K-AI 패키지'의 적극적 추진 뒷받침을 도모
	□ 대통령, AI 활용 비리 적발 시스템 구축 주문(2026.08.21)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인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과 함께 지방정부의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부정, 보조금 부정 수급, 전관 유착 등 공직 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AI를 활용한 비리 시스템 적발 등 부패 근절 대책 논의를 전개 - 이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성과가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며 부패 청산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회의에서는 토착 비리·공공 계약 비리·국가 재정 편취·전관 유착 근절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부처별 대책 보고를 진행 -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 단속으로 639건, 1730명을 적발해 654명을 송치하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금 이상 거래 전수 점검과 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지방의회 위법 수의 계약 실태 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조달청은 페이퍼 컴퍼니 의심 기업 입찰 보증금 부과와 실지 조사 확대를 추진
지자체	□ 전남광주시, 반도체·AI 중심 첫 조직개편(2026.08.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인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구를 기존 4실·7본부·24국에서 4실·8본부·27국 체제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한편 4명의 부시장 기능을 산업·균형발전·기본사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행정력 집중 방안을 추진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반도체실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무안청사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을 신설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투자유치·인허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과 AI를 별개 산업이 아닌 첨단산업 생태계라는 큰 틀에서 묶어 핵심 성장동력으로 직접 관리하는 전략을 구성 - 행정문화 부시장은 광주청사를 중심으로 시정기획과 재난안전, 문화체육, AI모빌리티, 도시교통, 통합공항 등을 맡고 균형발전 부시장과 기본사회 부시장은 무안청사에서 자치분권·예산·에너지·농수산과 청년·교육 등을 담당하는 3개 청사 균형 배치를 시험하며, 시장 직속 조직의 부처 간 조정력 확보 여부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 속 광주·전남 행정 기능의 일원화 재편을 시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천안시,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 AI 교육 운영(2026.08.24) - 충남 천안시가 시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인공지능(AI)을 배울 수 있도록 24일 쌍용1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AI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신청 읍면동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실습 위주 강의를 제공하는 시민 체감형 AI 교육 사업을 추진 - 교육은 AI를 처음 접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생성형 AI 기본 활용법과 실생활 적용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는 쌍용1동을 시작으로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AI를 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계획 - 정부의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에 발맞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71만 시민 모두가 AI를 배우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육 대상을 지속 확대하며, 천안아산 AI 특화도시 조성 흐름에 맞춰 시민 체감형 교육을 늘리고 생활권 중심 학습 기회를 넓혀 AI의 일상 안착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포용 기반의 AI 학습 도시 구축을 도모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춘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위원회 정기회의(2026.08.21) -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난 19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호관 교수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안 점검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에 나서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과 생활 밀착형 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전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시민위원회는 지역 내 에너지 생산 시설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생활 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기회 상실에 대한 대응 방안,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용자 중심 자전거도로 설치 필요성과 조성방안 등을 논의 - 임성린 춘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민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춘천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정기회의를 통한 현안 점검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발굴을 이어가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지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운영의 지속을 기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코레일, 프랑스와 AI 예측정비 기술협력 교류(2026.08.25)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5일 대전 본사에서 프랑스 철도 신호시스템 전문기업 CSEE와 전기 분야 유지보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열고, 유서혁 안전부사장과 질 파스코 CSEE 대표 등 양국 철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먼저 찾아 사고를 막는 예측정비 기반의 유지보수 고도화 방안 논의를 전개 - 1902년 설립돼 국내 고속철도 도입 당시 열차제어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지원한 CSEE는 예측유지보수시스템과 차상검측 운영 사례, 유럽 열차제어시스템의 ATC에서 ETCS-2로의 개량 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레일은 선행 열차 위치와 선로 정보를 바탕으로 후행 열차의 허용 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국산화 기술인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구축 계획과 상태기반유지보수(CBM) 운영 현황, 예측기반유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보수(PdM) 도입 방향을 소개 - 양측은 AI 기반 중장기 유지보수 고도화 구상과 함께 전기설비 안전성, 점검 효율,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교류를 정례화해 철도 전기 분야의 공동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며, 유서혁 안전부사장은 글로벌 철도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혀 전기설비 유지보수 기술과 철도 안전·신뢰성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불 기술협력 기반의 철도 안전 강화를 도모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넥센타이어, 국내 공장 첫 직접 PPA 도입(2026.08.24) - 넥센타이어가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양산공장에 육상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약 4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24일 밝히며,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해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경영 전략을 추진 - 연간 발전량은 약 6기가와트시(GWh)로 3인 가구 16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하고, 창녕공장에서는 지붕 임대 방식 태양광 설비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가발전 설비로 전환해 2028년까지 10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장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9%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구성 -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OE) 타이어를 공급하는 넥센타이어는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탄소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따라 2023년 대비 2034년까지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58.8% 감축하는 목표 이행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하나금융, 임직원·고객 참여 탄소중립 캠페인(2026.08.19)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8월 1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임직원과 손님이 함께하는 'HANA Green Mat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임직원에게는 개인 맞춤형 친환경 미션을 제공하고 손님에게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 - 그룹 임직원은 QR코드를 통해 'HANA Green Mate'에 접속해 직장이나 일상 등 현재 장소를 선택하면 상황에 맞게 즉시 실천 가능한 미션을 제공받으며, 미션은 에너지 절약과 냉난방 효율, 자원 절약 및 디지털 전환, 일회용품 절감 및 자원순환, 친환경 이동, 친환경 식생활 및 생활습관 등 총 70가지로 구성되고 캠페인 종료 후 미션별 참여 건수와 수행량을 집계해 예상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산출할 예정 - 손님은 본인 SNS에 자신만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게시해 참여할 수 있고 추천을 통해 3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며,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를 기부하는 산림 회복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과 손님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을 기대
대학교	□ 부산대 연구진, 개정 탄소중립법 한계 진단(2026.08.25) -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지난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미래세대 환경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이 교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관성을 이기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윤 변호사는 위험적이라는 견해를 제시 -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법안으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으며, 이 결정은 윤 변호사가 제기한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의 결과이고 개정안을 위한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 교수가 총괄주저자로 참여한 IPCC 6차 평가보고서가 주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국회 후속 입법에 큰 기대를 걸었던 두 전문가는 탄소배출 감축 경로가 매년 일정량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로 설계된 점을 큰 한계로 지적하며 법안을 기후행동의 지연이라고 비판했으며,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올여름처럼 한국의 기후위기가 현재진행형 재난이 된 상황에서 미래세대 환경권 보장을 둘러싼 감축 경로 설계 논의의 지속을 시사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제주항공, 전 임직원 AI 교육으로 AX 확대(2026.08.19) - 제주항공이 대표이사와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히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직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 아래 직급과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을 나눈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추진 - 임원진은 AI를 활용한 사업 전략과 조직 전환 사례를, 팀장급은 부서별 AI 적용 방안을 교육받고 실무진은 업무혁신과 문제 해결,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출 등 3개 과정 가운데 직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는 체계로 구성해, 직급별 역할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실제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구체화 - 제주항공은 지난해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하고 올해 6월에는 AI 기반 위험물 안내 프로그램 'JRAG'를 도입하는 등 AI를 고객 서비스와 내부 업무에 확대 적용하는 중이며, 전사적 AI 교육을 통해 항공 업무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교육 성과를 실제 업무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는 AX 확산을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카카오, AI 중심 인적분할...2030년 매출 16조(2026.08.22) - 카카오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사업을 이끌 신설 법인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 및 신사업 발굴을 맡을 존속 법인 '카카오X'로 나누는 인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키며,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분할 비율을 카카오X 0.64, 카카오AI 0.36으로 정하고 기존 주주가 지분을 그대로 양사 주식을 나눠 갖는 체질 개선을 추진 -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 17일 열리고 내년 1월 1일 분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같은 달 27일 카카오AI의 재상장과 카카오X의 변경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신아현 카카오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사용자의 의도와 대화 흐름을 읽는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로 전환해 대화창 안에서 상품 검색부터 추천, 구매, 결제까지 처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첫 협력 주자로 쿠팡이츠와의 음식 주문·결제 서비스를 예고 -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천만 명 돌파와 플랫폼 체류시간 50% 이상 확대, AI 부문 1조 원 이상을 포함한 총 6조 원 이상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온디바이스 AI와 지능형 라우팅 기술로 추론 비용을 낮추는 실속형 전략과 스몰딜 중심 인수·합병을 예고했으며, 카카오X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펀터테인먼트, 카카오토티티 등을 거느린 미래가치 투자회사로의 재편을 전망
해외	□ 오픈AI, 2027년 상장 목표...기업가치 1조달러(2026.08.20) - 생성형 인공지능(AI) 선두 주자 오픈AI의 새러 프라이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내 전체 회의에서 오픈AI가 내년에 상장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2027년 증시 상장 목표를 공식화했고, 오픈AI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장 주도권을 명확히 하려는 행보를 전개 - 프라이어 CFO는 IPO가 결승선이 아니라 이정표이자 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지난 3월 이미 1220억달러(약 169조원)를 유치해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6월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엔트로픽의 9월 선행 상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사의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 성장세가 가속하면 상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 오픈AI의 2분기 매출은 67억달러(약 9조3000억원)로 전 분기보다 18% 늘었지만 적자 폭은 커진 반면 엔트로픽은 2분기 매출 116억달러(약 16조1000억원)로 처음으로 오픈AI를 제치고 첫 분기 영업이익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투자 유치 당시 8520억달러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상장 시 1조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기 위해 IPO 시기를 늦추는 방안 검토를 시사
	□ 엔비디아, 메모리 부족에 AI 서버 15% 인상(2026.08.23) -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AI 서버 제품 가격을 최소 15% 올릴 계획으로, CNBC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최근 대형 고객사들에게 AI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서버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전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격 정책 변화를 확인 - 인상 대상에는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 등 주력 GPU가 탑재된 서버가 포함되고 인상 폭은 15%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년 초 출하 제품부터 적용되고 구체적인 가격은 서버에 탑재되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AI 열풍 속 수요 폭증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애플과 퀄컴도 반도체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상황을 반영 - 구글과 메타플랫폼 등 일부 AI 기업이 엔비디아 제품 대신 독자적인 AI 구동 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GPU를 자체 개발하더라도 외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진단이 나오며, 세계 각지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사업 지연과 인력 부족, 자본 시장 악화, 지역 사회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을 전망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